

C1
214
0125B
C12

福音과 律法에 대한 M. Luther와 J. Calvin의 이해 연구

지도교수 : 박 중 칠

이 論文을 석사학위 論文으로 提出함.

1988년 1월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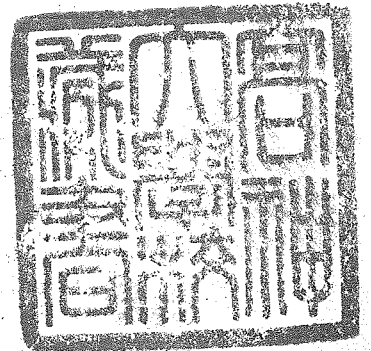
신 학 과
李 勝 熙



고신대학교



DM00002250



감 사 의 말 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혜 주셔서 신학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 기도하며 후배양성에 헌신하시는 홍반식, 오병세, 이근삼, 안영복, 이보민, 김병원, 황창기, 이승미, 고재수, 박도호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대학부 시절에 지도해 주신 이환봉, 이상규 교수님, 특히 본 논문을 지도해 주신 박종철 교수님, 끝까지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신 심정현 목사님께 이 글로 감사를 포함합니다.

또한 목회현장에서 기도해 주시며 아껴주신 이종승, 박정원 목사님께 감사하며 그동안 배후에서 이깁없는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신 성산교회, 주례중앙교회 그리고 온천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아들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시며 키워주신 사랑하는 어머님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족한 논문을 쓴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까지 눈물과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님께 바칩니다.

1988. 1.

목 차

제 1 장 서 론	4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4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취급범위	6
제 2 장 복음과 율법에 대한 개괄적 연구	9
제 1 절 율법의 무용론과 유용론	9
제 2 절 바울 서신에 나타난 복음과 율법	12
제 3 장 복음과 율법을 재발견한 루터와 칼빈	14
제 1 절 루터와 칼빈의 약력 및 저서	14
1. 루 터	14
2. 칼 빈	16
제 2 절 말씀의 二重的 개념에 대한 이해	18
1. 루 터	18
2. 칼 빈	22
① 율법과 죄인으로서의 인간	23
② 복음과 以信得義의 인간	24
제 3 절 차이 및 선포의 필요성	26
1. 루 터	26
2. 칼 빈	30
제 4 절 복음과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36
1. 루 터	36

2. 칼 빈	40
제 4 장 율법의 새가지, 용법과 복음	45
제 1 절 정치적 용법	45
제 2 절 교육적 용법	47
제 3 절 생의 법칙으로서 용법	49
결론 및 제언	56
1. 결 론	56
2. 제 언	58
참 고 문 헌	60
Abstract	6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만일 우리가 사려깊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律法)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¹⁾

새로운 도덕가는 20 세기의 도덕률 폐기론자이다. 율법을 반대하는 자는 율법의 종류(category)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전적으로 폐기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율법 또한 그리스도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언한다.²⁾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가 율법에 대한 복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가혹하고 완고하며 엄한 선생(teskmaster)이라고 생각한다.³⁾

1) John R.W. Stott, 「Men Mede New : Rom 5 - 8」 김유배 역, (서울 : 엠마오, 1985), p.61.

2) 이 말이 때로는 '자유 사상가들'이란 말과 동의어로 쓰인다.

3) 바울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율법을 4) 혐오하고 거부하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그것에 속박되어 있다. 그러나 율법을 준수하는 신자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그에 순종한다. 그렇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복음 아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없는 신자가 많다. 그리하여 율법주의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현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은 ‘율법 준수’를 구원에 적용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없다.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혼란은 더해간다.

위의 문제는 오늘날 당연한 문제라기 보다 5백여년 전 종교개혁자 루터까지 소급될 수 있다. 즉 루터가 율법을 구원의 길로 인정해 준대 있다. ‘구원은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지만, 율법과 무관한 구원이 아닌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서정’(ordosalutis) 적으로

4) 정훈성, 「웨스트독 신앙고백해설」(서울: 한국복음문서 연구회, 1983), p.111.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칙으로서 좁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을 가르키고, 넓은 의미로는 구약전체를 가르킨다. (고전 14:21, 롬 3:19). 이 말은 규례, 계명, 조합, 말씀, 심판, 교훈, 길 등 여러가지로 불리우며 신학상 행위언약을 지시한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이스라엘의 율법이기도 했다. 율법, 즉 히브리어로 **הַתּוֹרָה** (헬라어로 *νομος*)는 구약에서 220회 나오는데 이 말은 동사형은 “던진다(**הִרְגִּים**)”는 뜻이다. 즉 활을 쏜다, 제비를 뽑는, 건물의 기초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이 말은 “가르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해한 점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과 복음의 율법의 관계를 구원사 (historia salutis)적 관점에서 이해하였다.⁵⁾ 바울은 율법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백성을 이끄는 몽학선생으로 이해하였다.⁶⁾

본 글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복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루터는 칭의의 관계에서 이해하므로 오늘날까지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대조적으로 칼빈에게 와서 성경적으로 정립하였음에 대한 연구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살면서 생의 법칙으로 율법을 준수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루터와 칼빈의 율법관 이해를 고찰하므로, 복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문제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글과 연구가 없는 것을 지적하며 한국 교회와 신학계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율법폐기론과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이 구속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의 법칙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그 목적이며, 아울러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잘 연구하여 분명한 지혜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세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취급 범위

본 논문에서는 현대 교회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5) 서철원, 「율법과 복음의 관계」(서울: 엠마오, 1987), p.4.

6) 갈 3:14.

이해하는데 있어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의 해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특히 루터의 주석과 몇몇의 영역 작품들을 7)참고하여 루터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8) 중심으로 양자의 관계를 개진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들과 성경신학자들의 주석류와 사전류를 참고하여 연구하였는데, 가급적 루터와 칼빈의 견해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제 1 장에서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하였고, 제 2 장에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먼저 복음과 율법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가 필요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무용론과 유용론을 대조하므로 본 문제를 시작하였다.

제 3 장에선 복음과 율법을 재발견한 루터와 칼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면을 할애하였다. 먼저 그들의 약력과 저서활동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중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과 율법 선포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7) The Philadelphia Edition, 「Works of Martin Luther」(Grand Rapids, Michigan : Barken Book House, 1982). 본 논문에서는 'WA' 로 약어로 사용하며 장은 숫자로 표시하였다.

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①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Michigan, 1966) ② Edited by John T. McNeil Translated and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 (The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1967), 기독교 강요를 인용할 때, 본 논문에서는 'Inst' 라고 표시하고, 권, 장, 절은 숫자만으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세가지 용법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해석을 비교 연구하면서 복음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경적인 율법의 위치와 역할을 재조명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제 2 장 복음과 율법에 대한 개괄적 연구

제 1 절 율법의 무용론과 유용론

실로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며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하였던 소유물 중의 하나이다.⁹⁾ 로마서 9:4을 보면 ‘율법을 주심’은 이스라엘에게 베푼 여러 특혜들에 포함된다. 율법을 불경건한 투로 말하거나 그리스도인의 특혜인,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환영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과 같은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율법의 파괴자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해 격분했었다.¹⁰⁾

바울에 대해서 말하면 성전 구내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훼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행 21:28)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하였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어떠한가? 그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14, 15절) 있다고 두 번 기록하였다. 바울의 이러한 진술이 그의 독자들에게는 혁명적인 것으로 들렸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9) 율법은 이스라엘의 예배 및 종교행사, 개인과 사회의 도덕생활, 국가와 관련된 법조문으로서 구약의 위치에서 비중이 크다. 모세오경에는 365개조의 금지조항과 248개조의 계명으로서 613개 조항의 율법이 종교행사에서는 물론 국가의 법률로서 매우 타당하게 성문화되었다.

10) Joh. J.W. Stott, op. cit., p.60.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이제 폐지되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계속적인 어떤 여지를 갖고 있는가?

먼저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몇몇 성경귀절을 인용하여 11) 율법을 전적으로 거부할 뿐 아니라, 인간의 도의적이며 영적인 문제들 중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그것을 비난한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① 신자는 도덕적 법 아래 있으나 의식 법 아래는 있지 않다.
- ② 신자는 도덕적 법 아래 있으나 법의 정죄 하에 있지 않다.
- ③ 신자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나 모세의 법 아래 있지 않다.¹²⁾

이상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것이요, 율법 아래에서의 구출은 죄에서의 구출을 의미한다.¹³⁾

그러면 신자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통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성경에 율법이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이 성경의 많은 법규들이 그 준행의 필요성이 상실된 듯하니 그 존재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11) 롬 6:14, 갈 5:18, 고전 9:20.

12) A.W. Pink, 「The Law and Saint」. Pink는 이 책에서 모세의 법이란 전 오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법이란 십계명에 국한시키고 있다.

13) 이 도덕법은 의롭게 된 사람이나 그 밖의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영구히 이 법에 복종하도록 구속하였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 법의 내용만을 고려해서가 아니고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고려해서이다(약 2:10, 11).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불가폐성을 단호하게 선언하였다.¹⁴⁾ 그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오셨다.¹⁵⁾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 율법의 선포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구약의 율법을 신약 시대에 해석하시며 가르쳤다.¹⁶⁾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으면 그 다음은 어떠한 것인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이제 율법 없이 자유로이 우리 좋은대로 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죄를 섬기도록, 곧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 해방된 것은 아니다.¹⁷⁾

여기서 본 절을 끝내기 전에, “율법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에 대해 유용한가?”란 물음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란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율법에 달려있지 않다는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다’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충족시켰으므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율법은 우리에게 대해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주(Lord)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

14) 마 5:17-19, 약 2:8, 롬 3:21.

15) E. F. Harrison. 「Baker's Dictionary of Theology」 신성종 역 (서울: 엠마오, 1986), p.633. 예수님께서서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기 때문에 (갈 4:4) 의식법의 규정들과 도덕법의 규정들을 그의 생애를 통하여 완성하셨으며, 최고의 의미에 있어서 모든 義를 완성하셨다(마 3:15, 5:17).

16) 예수님의 율법관은 언제나 보완적이며 적극적이다.

17) Joh. R. W. Stott, op. cit., p.68.

운 노예신분' 18) 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렇다'이다. 비록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섬기는 노예들(Slaves)이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의 동기와 방법이 다르다.19)

제 2 절 바울 서신에 나타난 복음과 율법

바울은 구원사적 관점에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였다. 즉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 예비해 오셨다는 사실에 바울의 주안점이 있다. 또한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의 준비라는 사실을 그는 입증하였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칭의의 길이 아니라고 20) 가르칠 때 바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 사역에 눈을 두고 이 구원을 어떻게 예비해 오셨는지를 살폈다. 즉 아브라함에게 미리 의의 길, 곧 구원의 길을 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구원이 가능함을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보였다. 바울은 율법을 더하시므로 범죄가 더하게 하여 온전히 구속주, 곧 자기들을 대신하여 자기들의 자리에서 자기들을 위해 율법을 온전히 지켜주실 율법의 완성자이신 메시아

18) 옛 언약은 문자(의문), 곧 우리 밖에 있는 돌판에 새긴 외적인 규약이었다. 새 언약은 복음, 곧 '영'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노예 신분이다.

19) John. R.W. Stott, Ibid.

20) Harrison, op.cit., p.634.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율법은 단지 백성들을 절망하게 하여 그들의 구속주 곧 율법의 완성자의 도래를 열망하게 하고 그리하여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한 사명밖에 없다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요지이다.²¹⁾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신 의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뿐이다.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바울의 중심 교리이다.²²⁾

21) 구원은 믿음의 길이요, 율법의 길이 아니다. 바울은 갈 3장에서 구원의 길로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뿐이요 그 이후 율법은 전적으로 무력해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22) 서철원, *op. cit.*, pp.10-21.

제 3 장 복음과 율법을²³⁾ 재발견한 루터와 칼빈

제 1 절 루터와 칼빈의 약력 및 저서

1. 루 터

루터는 1483년 2월 10일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나 1496년 마구레부르크의 공동생활의 형제단이 경영하는 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502년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 현공에 의해서 뵘텐베르크 대학이 설립되고 에르프르트 의 어그스틴 수도회의 수도원에 들어갔다. 1512년 신학박사가 되어 뵘텐 버그 대학의 성경강의 교수가 되었다. 그는 이 대학 동쪽 끝에 자리잡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숙식을 취하였다. 여기에서 이른바 “탑의 경험”이 이루어졌다.²⁴⁾ 그는 성경으로부터 복음을 재발견했던 것이다. 이 복음신앙이 소위 종교개혁 신학의 중심을 형성하였고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1515년과 16년에 걸쳐 로마서 강의를 하였으며, 1517년에 95개 조의 조항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됨은 유명하다. 그는 계속해서 글을 쓰

23) Harrison, p. 643. 고후 3장과 갈 2, 3장에는 율법과 복음이 예리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24) 김명혁, “루터와 종교개혁”, 「종교개혁강의」 합동신학교, 1977.4.

고 25) 성경을 번역하고 26) 강의를 하였으며 Roma 교회와 사웠던 것이다.

루터 자신이 1545년에 쓴 라틴어 작품들의 서론에 의하면, 1519년에 복음적인 하나님의 義에 관한 개념과 稱義교리를 확고히 붙들었다고 하였다.²⁷⁾ 그러나 이미 1515/16 사이에 저작한 <로마서 강의>에서 1519년에 쓴 <갈라디아서 강의>와 완전히 일치하는 복음주의 신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515년에까지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513에서 및 1515년까지 강의한 <시편 강의>내용 역시 주로 1513 ~ 1515까지 소급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²⁸⁾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로마서 강의와 갈라디아서 강의에 있어 1520년대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종교개혁 신학을 대표한다고 본다.

루터는 롬 1:17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고 이것을 가지고서 시편을 들여다 보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義)가 나타나서'²⁹⁾ 귀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죄인이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의로서 오직 믿음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³⁰⁾

25) 1520. 36 문서 「기독교계의 개선에 관해서 독일민족의 기독교인 귀족에게」,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관한 서곡」, 「기독교인의 자유에 관해서」 발표. 「노예 의지론」으로 에라스무스스 반박, 1959 「황제에 대한 저항권에 관해서」

26) 1534년 독일어 역, 신구약 성경간행.

27)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4), p.24.

28) 1517년 95개 조항이나 1518년의 히브리서 주석 같은데에는 아직도 중세기적 신학의 잔재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말할 수 있다.

29) *δικαιοσύνη γαρ θεοῦ ἐν αὐτῷ (εὐαγγελίῳ)*

30) 이형기, op. cit., p.250.

루터에게 있어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가³¹⁾ 성경해석의 원리인데 이것이 시편의 경우 잘 드러나 있다. 즉 시편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약속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도 들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 율법의 이해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의 복음 이해가 더욱 철저해졌으며 그는 이 양자간의 한층 역동적인 역설을 지향하였다. 본 강의에서는 로마서 강의에서 취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신학적인 주제, 곧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취급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이며 율법과 복음으로 받아들여 진다.

2. 칼 빈

칼빈은 루터가 출생한 후 26년이 지난 1509년 피카르디의 Noyon 에서 태어났다. 1533년 8월 성직자 회의에 출석하고 교회록을 받고 있는 조제의 소임을 수행하였다. 그는 1536년 4월에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라는 이름으로 바젤에서 출판하였다.³²⁾ 이 책은 기독교 문헌 중 가장 귀중하고 영원히 남아야 할 책으로 지적되며 영적인 깊이와 능력을 소유한 조숙한 천재의 걸작인 것이다.³³⁾ 칼빈의 기독교강요 이

31) The Philadelphia Edition, 「Works of Martin Luther」 Vol II,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2), 35, 132.

32) 김명혁, “칼빈의 생애와 사상” 「종교개혁 강의」 합동신학교, 1977.4. “이 책은 사변적인 신학서적이라기 보다는 신앙고백의 책이요, 실제적인 생활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33) Philip S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Wm B. Eerdmans Pub. Co. Grand Rapids, 1969) Vol. VIII p. 329.

전 1533년 경에야 완전히 종교개혁의 복음주의에로 기울어졌으나 아직도 칼빈은 종교개혁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³⁴⁾

칼빈은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1536년판, 1539년판, 1541년등 불어판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1543년 기독교 강요를 다시 썼는데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가 있었듯이, 칼빈은 Louis du Till ef 집에³⁵⁾ 머물면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출판하였다. 본서는 복음주의자들을 오해하여 박해하는 불란서의 왕과 집권층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조국의 복음주의자들을 위하여 쓰여졌다. 본서의 두가지 목적은 ① 복음주의의 교리적 입장을 변명하는 것 ② 1534년부터 1535년까지 복음주의자들을 박해했던 Francis I 앞에서 복음주의자들과 복음주의 신학을 변명하는 것 등이다. 1536년의 초판 기독교 강요는 1559년 최종판에 비하여 대단히 간단하다. 즉 초판의 경우는 겨우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칼빈은 본서에서 어그스틴과 특히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보인다. 1539년판은 1536년판의 3배나 되는 17장 중에서 6장 정도가 전혀 새로운 장들이다.³⁷⁾

34) 이형기, op. cit., p.258.

35) 칼빈이 1535년 Busel에 비난하였을 때 Oecolampadiw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곳에 에라스무스가 살고 있었고, H. Bullinger와 G. Fard 및 Pierre Robert가 이곳에 살았다.

36) 제 1장은 율법, 제 2장은 신앙(사도신경), 제 3장은 기도, 제 4장은 성례자, 제 5장은 거짓 성례자, 제 6장은 기독교자의 자유, 교회정치와 국가이다.

37) 1536년도판의 2장을 확장시키고, 나머지 6장은 수정, 증보한 것이다. 이형기, op. cit., pp.262-274.

제 2 절 말씀의 二重的 개념에 대한 이해

1. 루 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38) 로마서 강의에서 취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신학적인 주제, 곧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취급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이며 율법과 복음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관하여는 1531년 세번째로 다시 쓴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더욱 상세하게 논급되었다. 39)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보통 자연법 혹은 양심에 기록된 법에 관한 이야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하지만 모든 인간이 이에 죄로 인해 타락하므로 실패하였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밑에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케 하였고 그가 친히 율법의 끝이요, 목적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통하여 정의가 일어나는 것이다. 40)

38) 루터는 본래 1516년 11월 27일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기 시작하여 1517년 봄에 끝냈으나, 이 때의 강의 서류들은 분실되었고, 1519년에 재개된 갈라디아서 강의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내용이다.

39) M. Luther, 「A Commentary on S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West wood, N. J : Fleming H Revell Company, 1961).

40) 이형기, op.cit., pp.53-54.

루터의 사상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규명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루터는 신약에서도 율법을 발견하고 있고 복음은 율법의 정신적 이해를 가르친다고 생각한다. 그는 복음을 그리스도만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면서도 41)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며 율법의 해석자라는 이중의 직책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이 둘 가운데서 전자만이 엄격한 의미에서 복음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을 설교해서는 안되는 것이니, 이 두가지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루터는 말한다. 42)

루터는 율법을 복음에 비취서 이해해야지 그 반대의 경우는 부당한 것으로 보고 말씀에 대한 2가지 개념을 피력한다.

첫째, 말씀의 개념의 하나는 율법이다. 율법은 복음과 함께 속하여 복음의 목적을 위하여 봉사한다. 그러나 그것을 오용하면 그것은 폭군이 되거나 악마의 교리가 될 수 있다. 43) 루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缺如되었다고 믿었다. 율법의 성격이 요구하는 내적인 생명적 요구 앞에서는 인간은 철투 철미한 죄인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 루터는 율법을 ‘영적 감옥’이라고 보았다. 44) 율법이 선행을 가

41) 루터의 성경관이 그리스도 중심적임을 R. Prenter, 「Wther on Word and Sacrament」 in More About Luther, p.65에서 밝힌다.

42) 이장식, 「교리 중심의 기독교 사상사」 제 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pp.122-123.

43) Ibid.

44) 송정율, “루터에 있어서의 율법과 복음”, 「기독교 사상」 9/10.(1959, 10), p.26.

저울 수 있는 것을 루터는 부인하거나 그 가치를 무시하지 않으나 그것이 義認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윤리적 규범으로서 율법의 가치는 인정하나 그것이 종교를 대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되면 종교와 대립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율법의 구원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폐기된 것을 말하나 율법 자체가 폐기되거나 무시된 것은 아님을 그는 말한다.⁴⁵⁾

다음으로 말씀의 다른 한 개념은 복음이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그러므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런데 복음에는 두 직책이 있다고 루터는 말한다. 첫째 직책은 율법을 해석하며 그 율법의 영적 용도를 발효케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복음의 색다른 역할⁴⁶⁾ 이라고 그는 부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것이다. 곧 죄를 알게 만들어 용서를 받기 전에 회개를 명령하시는 것이다.

복음은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기 전에 먼저 우리들을 죄인이라고 선포한다. 용서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기 전에 먼저 이 나쁜 소식을 전한다. 즉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는 귀에 거슬리는 소식이다.⁴⁷⁾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은혜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복음의 본연의 직책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

45) 이장식, op. cit., p.123.

46) opus alienum.

47) Gal. E. T. 113, 23 ff.

님의 본연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즉 용서와 은혜와 생명을 계시하는 일을 복음이 한다. 회개하고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가 아닌 자녀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 복음은 죄의 정복만이 아니라 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주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준다.⁴⁸⁾

이상에서 말씀의 二重의 개념에 대한 루터의 견해를 살펴본대로, 율법으로서의 말씀에도 二重의 직책이 있다. 그런데 율법의 영적인 용도와 복음의 색다른 역할은 성질상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는 신약에도 율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고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또 그는 율법이 영적으로 이해되면 복음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⁴⁹⁾ 그러나 루터에게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 역설적인 긴장이 없지 않으며 또 그 긴장은 복음의 두 직책 사이에도 있는 것이다. 이 역설적 긴장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역설성이며 하나님의 이중의 일의 역설성이다.

사람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본연의 일에 선행하는 그의 색다른 일, 즉 율법적인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면 그의 본연의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적인 색다른 일과 복음적인 본연의 일이 계속되는 것이니 율법은 폐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인인 만큼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율법

48) W A. 1:83. 39 f.

49) W A. 3, 96, 26.

과 복음의 二重的 형식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것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양극성을 지혜롭게 피하고 중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⁰⁾

2. 칼 빈

앞서 필자는 루터의 말씀의 이중적 개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다. 이제 칼빈이 이해하는 二重的인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과 율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취급하려는 율법과 복음, 곧 이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파악할 때 우리는 문자주의적 성경주의나 율법주의적 축자영감론에 떨어지지 않는다. 율법과 복음은 성경과 실제내용을 구축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구약과 신약의 해석학적 열쇠가 된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중성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각각 해당된다.⁵¹⁾ 루터의 경우 역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나 칼빈만큼 기록된 말씀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말씀의 3중성을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⁵²⁾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적이면서도 이중적이다. 그러면 이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중적인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무엇인가?

50) 이장식, *op. cit.*, pp.125-126.

51) K. Barth는 K.D.I에서 3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Barth는 역시 기록된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E. Brunner, Gogarten 등도 마찬가지이다.

52) Hyung - ki: Rhee, *A Study of Manin Erasmus and Luther (Dissertation at Drew School, 1980)*, p.160 ff.

① 율법과 죄인으로서의 인간

칼빈은 자연인의 내적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일어나는, 혹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자기 이해를 기록하시고 위엄과 존엄에 찬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염두해 두면서 율법이란 무엇이고 그 기능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칼빈은 그의 강요에서 율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그것을 거울로 하여 우리의 죄악성을 드러내 주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해준다.” 53)

칼빈은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혹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척도에서 전적으로 부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 기록하신 분임과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중성은 하나님의 모습의 자기 계시이다. 기독교강요 제 2권에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화해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고 54) 말하고 있다. 복음은 하나님이다. 따라서 인간은 기록하신 하나님과 그의 율법(요구, 명령 및 고발)을 만나면서 또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과 그의 복음(성취, Indicative 및 위로와 구원)을 만난다. 하나님과 그의 복음은 인간에게 역설적

53) Insti. II. vii.3.

54) Inst. II. xxiv. 5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어 주시기 위하여 속죄의 직분을 어떻게 다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및 승천.

으로 계시된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와같은 이중성이 불가피하다. 55)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이며, 율법을 경험한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가? 신학적 인간론이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의 자기 이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지식은 기록 기록하신 하나님의 모습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복음 및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자.

② 복음과 以信得義의 인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신비가 분명히 계시된 것이요. 56)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은혜의 선포”라고 정의한다. 57) 복음이라 할 때 물론 예수님 자신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말씀 58)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전 사업(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를 의미한다. 칼빈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한다. 59) 누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인간이어야 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55) Insti. III. iii. 3.

56) Insti. I. ix. 2.

57) Ibid.

58) Ibid., II. xv. 2.

59) Ibid., II. xii. 1.

우리와 함께 하심 60)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

그러면 구원사업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셔야 했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 그것도 전인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율법과 죄인으로서의 인간에서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율법(요구, 명령, 정죄)과의 만남에서 노출된 인간의 숙명을 걸머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 분이 죄인의 역할을 하신 것이다.⁶¹⁾

그러면 왜 동시에 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셨는가? 기독교 강요 제 2권에서 ‘우리의 가장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을 때에 그의 독생하신 아들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다’고 하고 있다.⁶²⁾

따라서 우리는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악이 63)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적극성, 곧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다.⁶⁴⁾

그러나 복음 사업은 다만 십자가와 부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강림 이후 성령을 통하여 계속

60) Ibid.

61) Inst. II. xvi. 5.

62) Inst. xii. 3.

63)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율법에서의 조명에서 노출된 것.

64) Inst. xvi. 14.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까지 포함한다.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 속에는 “말씀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⁶⁵⁾고 진술하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술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진술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비록 많은 문맥들 속에서 이 구별에 대한 주의를 요구되지 않고 있지만, 칼빈의 생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서로 뒤바뀌어 사용될 수 없는 말이다.⁶⁶⁾

제 3절 차이 및 선포의 필요성

1. 루터

루터의 복음과 율법의 차이에 대한 그의 사상도 아주 의미 심장한 것이다.⁶⁷⁾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이해에 있어서, 루터는 본래 자신에 의해 진술된 노선들의 범주를 계속 맴돌고 있다.⁶⁸⁾ 어떤 사람도 율법이 복음에 앞서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결코 획득하지 못한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각자가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⁶⁹⁾ 한다. 루터는 결코 항시 새로운 적용들의 이 차

65) “In scripturiz santis, quibus continentur” 제네바 요리문답, 1545. Corpus Reformatorum, Calvin, VI, 110 : tr J.K.S.Reid, Library of of Chriktion Classics XXII (Philadelphia, 1954), p.130.

66) John Cairn, 「칼빈의 성경관」 편집부 역음(서울:풍만출판사, 1986), p.94.

67) J.L.Leve, 「기독교 교리사」 서남동 역(서울:대한기독교교리사, 1986), p.354.

68) Supra. p.228.

69) Er bsund. 19. 235.

이들의 이 차이들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였다.⁷⁰⁾

“율법과 복음간의 차이는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최고의 예술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자랑하거나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알아야 하며 이해해야 한다.”⁷¹⁾

루터는 상속된 자연법의 중세적 개념을 공유했기 때문에⁷²⁾ 그는 율법이 자연법과 일치하는 경우에서만 율법으로 인정했다. 그것과 관련하여 그는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다른 방편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다.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들도 역시 율법의 선포가 되었다.⁷³⁾

그러나 십계명을 포함한 전체의 율법을 교회의 율법과 함께⁷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인다.⁷⁵⁾ 따라서 율법은 그 자체에 대한 죄인의 증오를 불러 일으킨다.⁷⁶⁾ 율법은 인간을 압박하며 인간은 율법의 요구들을 내적으로 실제로 실제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공포의 생각이 인간을 사로잡게 되며 하나님에게서 도망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⁷⁷⁾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서 도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원

70) Reinhold Seeberg, 「기독교교리사: 중·조세편」 김영배 역(서울:엠마오, 1985), pp.314-347.

71) Erbsund. 19. 235.

72) Supra. p.171 f.

73) Erbsund. 13. 116f. i11. 147.

74) Gal. 1. 181. W. A. 2. 527.

75) WA. 2. 468 ; 6. 353.

76) WA. 2. 498, 532.

77) Erbsund. 9. 179.

수가 되고 만다.⁷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압박에서 해방되고 싶은 큰 갈망이 그의 심령을 채우게 된다. 이것이 그를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하게 만든다.⁷⁹⁾

루터는 설교자들이 율법의 선포로 시작해야 됨을 주장하고 있다.⁸⁰⁾ 이유는 세상이 확실히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⁸¹⁾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인간이 자신의 죄를 자각한 후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복음이 그들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⁸²⁾ 율법의 선포가 그 효력을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눅 24:47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위로가 뒤따른다⁸³⁾

“.....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총과 죄사함만을 제시하는 선포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죽음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더욱 진실하고 무서운 선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인간을 무서워하게 하는 만큼 그것은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선포가 아니라 비회개자에 대한 모세와 율법의 선포이다.”⁸⁴⁾

그러므로 루터에게 있어 율법은 회심에 포함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⁸⁵⁾ 이 목적을 위해 율법이 선포되어야 하며,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고⁸⁶⁾ 루터는 피력하고 있다.

78) Erbsund. 18. 73.

79) WA. 2. 528, 532. E. A. 289.

80) Erbsund. 10. 123f.

81) Erbsund. 10. 283 ; 48. 210.

82) Erbsund. 11. 328 ; 13. 295 ; 51. 270.

83) Erbsund. 29. 139f. ; 11. 327f. ; 27.124. Gal. 1. 186f. ; 2.115.

84) Erbsund. 13. 116.

85) Leve, op. cit., p.354.

86) Erbsund. 13. 51 ; 19. 246.

루터는 그의 활동 초기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율법의 선포를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율법이 굴욕을 주고, 최초의 회개를 일으키며 그리스도를 지시하기 때문이다.⁸⁷⁾ 1524년 초에 이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였을 때 루터는 율법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든지 않든지 간에 눅 24:47의 말씀에⁸⁸⁾ 근거하여 율법과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복음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만을 위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⁸⁹⁾

이상에서 루터의 복음과 율법 사이의 구별을 -종교개혁의 가장 밝은 빛이라 불리움-⁹⁰⁾ 고찰하였다. 오늘날 루터교 신앙고백에서 율법과 복음의 혼합이 언제나 위험이 있으며 그리스도교 신학에 대하여 참된 위험이라고 선언한다. 즉 전 성경을 통하여 두 교리가 나란히 소개되어 있으며 실로 두 교리가 한 문장에 포함된 정도로 매우 밀접하다고 한다.⁹¹⁾ 복음과 율법 사이의 적절한 구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

87) 율법이 여기에서는 단지 지시적이고 확증적인 작인으로서만 고찰이 되고 있다.

88) 눅 24:47,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89)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복음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강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그 이유는 율법의 강요를 통하여 억압받아야 될 많은 악인들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E. 53. 249).

90) 一致信條 (F. C.) 의 줄거리 (=Ep) V, 2;

91) 루터교 교의학자들은 보통 그리스도교 교리를 성경론, 신론, 인간론 등 큰 제목아래에서 소개한다. 그러나 모든 교리적 자료를 두 주요 표제인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하며, 또한 그리스도교 계시의 국면을 율법과 복음의 이중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면 복음과 율법 아래에서 취급하는 것은 루터교 신앙고백서와 완전히 일치할 것이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도덕 폐기론자들은 율법을 완전히 폐함으로써 복음을 높이는채 하나 그들도 그것으로 무의식 중에 복음을 율법으로 약화시킨다.⁹²⁾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분리할 수 없는 연결이 있으나 복음이 율법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모든 그리스도교 선포가 거꾸로 전도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둘의 기능은 결코 혼동되어서는 아니될 것을 F.E.Mayer의 The Religious Bodies of America (제 2판, 1956)의 제 3부 The Lutheran Church에서 찾아볼 수 있다.⁹³⁾

2. 칼 빈

앞서 언급한 루터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강의에서 이신득의의 교리를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야고보서 같이 이신득의 교리와 정반대의 교훈을 주는 듯한 책에 대해서는 “짚부스러기 편지”라고 부르고 낮추어 봄으로 성경 각권 사이에 가치의 차별을 두었다.⁹⁴⁾ 그러나 칼빈은 모든 성경은

92) Agricola와 같은 루터교 내에서의 어떤 도덕을 폐기론자들은 그리스찬이 다만 “복음(Gospel)에서만 구원의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율법의 설교는 그리스도교 강단에 감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루터교인들은 율법이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함으로 불신의 죄를 나타낼 수 없으며, 그러므로 모든 죄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 인간의 믿지 않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복음의 기능이라고 기술했으므로 도덕을 폐기론자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두 견해는 F.C., V, VI에서 죄된 것으로 규정을 받았다.

93) F.E.Mayer, 「루터교 신학」 지원용 역 (서울: 천콜리아사, 1960), p.106.

94) 김남식, 「종교개혁의 신학」 (서울: 한국성서협회, 1976), pp.113-114.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그의 첫번째 근본 전제가 된다.⁹⁵⁾

칼빈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두 계시의 차이가 내용보다는 오히려 형식과 규범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도 그렇게 보는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서와 같은 역설적 관계성을 칼빈은 율법과 복음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루터와 같이 칼빈도 구약과 율법에⁹⁶⁾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가 나타났고 또 복음도 율법과 같이 저주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바울에게 있는 율법과 복음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려는 그의 의도는 이미 앞에서 분명히 말한바 구약의 계시를 높이는 그의 사상과 분명히 일치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율법 혹은 옛 계약이 복음 즉 새 계약과 유사하고 통일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세가지 점을 지적한다.

첫째, 유대인들에게 제시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하여 그들에게 증명된 것은 육적인 부유나 복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영원 불멸의 진리였던 것.

둘째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든 계약은 유대인들의 공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자비에서 온 것이라는 점, 세째로 비록 완전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들도 그리스도를 증보자로 모셨고 그리고 알았다는 것이다.⁹⁷⁾

95) T.H.L.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pp. 37-42.

96) 칼빈이 여기서 뜻하는 율법이란 말은 ① 모세의 전체종교(II.XII.1) ② 택한 백성에게 준 특별계시로서의 도덕법으로서 주는 십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요약(II.VIII) ③ 각종 민법, 형법 및 의식법규(IV.xx.14-16) 등을 뜻한다.

97) Inst. II.xx.2.

칼빈은 바울이 의문이란 말로 구약율, 영이란 말로 복음을 98) 의미하였다고 한다. 즉 율법의 본질은 문자가 가르키는 것으로 더 이상의 깊은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은 영적으로 가르키는 것이라는 99) 의미이다. 칼빈은 이제 율법이 복음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큰 영광을 부여하셨다고 주장함으로써 복음의 존귀함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바울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이 훨씬 더 장엄함을 이야기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100)

바울은 로마서 7:10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멸망의 원인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이는 율법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율법이나 복음은 원래 정죄에 이르도록 하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고 하고 있다. 101)

칼빈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의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중생의 방편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무조건적인 화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생명의 교훈이라고 간주함이 옳다. 반면에 율법은 비록 선한 삶의

98) 고후 3:6-10, John Calvin, op. cit., p.64.

99) John Calvin, op. cit., p.66.

100) 그 실례로 ① 바울은 율법을 “죽음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② 율법의 교훈은 ‘문자’로 구성되었으며 잉크로 기록되었다고 말한다. ③ 그것은 돌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고 ④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이며 곧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⑤ 그는 다시 한번 율법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부른다.

101) Calvin, op. cit., p.69.

규칙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선한 순종에 이르도록은 하지 못한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공포하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달리 표현한다면 율법의 기능은 질병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질병의 치료에 대한 희망은 주지 않는다. 반면에 복음의 기능은 전혀 가망이 없는 자들에게 치료를 베푸는 것이다. 사람들을 확신시키는 점에 있어서도 율법은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죽음을 규정한다. 반면에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따라서 생명에 이르는 문은 열어준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의 죽이고 속이는 속성은 율법의 본질적인 면은 아니라 할지라도, 항구적이며 복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3:10에서 102) 말한 바와 같이 율법 아래 머무르는 모든 사람은 저주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항상 죽이는 것은 복음의 속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103) 따라서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인 것이다. 104)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복음과 율법은 차이점은 있으나 모순점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105) 이로써 그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행위의

102)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기록하였음이라.

103) John Calvin, op. cit., pp.69-70.

104) 로마서 1:16.

105) Inst. II. vii. 2.

공적과 의의 값없는 전가로 대조시키는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잘못을 규탄하고 있다. 물론 이 대조는 조금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흔히 율법이란 말을 의로운 생활 규범의 뜻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칼빈은 바울의 뜻하는 바를 이렇게 성명한다.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용서를 통하여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고 해서 상급을 약속한 곳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¹⁰⁶⁾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대결시킨 것은 장한 것이다.¹⁰⁷⁾ 그렇다고 복음이 별개의 원리를 초래한다는 뜻에서 율법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은 율법의 약속을 모두 확립하고 追認하여 그릇자에 실체를 경합한다는 것이다.¹⁰⁸⁾

칼빈은 율법의 수여 목적을 구약 백성을 거기서 엮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여 그의 재림 때까지 양육해 주는데 있다고¹⁰⁹⁾ 율법의 필요성과 용도에 대해서 피력하고, 특히 율법은 복음을 뒷받침 해주므로 율법의 폐기론자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¹¹⁰⁾

칼빈은 율법이 신약시대에 와서 폐기된 것이 아니다. 율법 중 도덕법은

106) Ibid.

107) 롬 3:21 이하 ; 갈 3:10 이하 ; 빌 3:9.

108) CP. II. vii. 16 ; viii. 28, 29를 참고.

109) Inst. II. vii. 1.

110) Ibid.

계명의 王座를 차지한다. 그러면 도덕법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계명은 완전하며 111) 계명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는 구세주는 아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인도자가 된다. 112) 비록 의식법이나 재판법 또는 다른 모든 법이 변경 또는 폐기될지라도 계명은 항구적이고 그리스도께서도 이를 강조한 것이다. 113) 칼빈은 율법의 본질을 “생활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 되어 있는 십계명 뿐만 아니라 모세의 손으로 주어진 종교의 전체적인 체계” 114) 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을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의식법을 부여하신 것은 선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오실 때까지 그를 마음속에 그를 기다리는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115) 이 사실은 도덕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십계명이나 그 외의 율법을 지키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116)

율법의 목적은 은혜와 합쳐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용하다. 117) 또한 율법은 복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율법은 복음을 보내어 우리를 의롭게 해주며 우리의 성결과 참 인격을 형성해 준다.

111) 시 19:7.

112) Inst. II. vii. 1.

113) 마 5 - 7 장.

114) Inst. II. vii. 1.

115) Ibid.

116) Inst. II. vii. 2. 롬 10:4.

117) 참고귀절 : 마 3:10, 5:17, 롬 3:31, 10:4, 7:12, 22, 23, 12:17, 13:8-10, 엡 6:1, 살전 4:3, 4, 7, 약 2:8, 요일 2:4, 3:41 이는 개혁신교회 산조 헬-베텍 고백서, 위텐버그 고백서 등이 다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목적, 즉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순종해야 하며, 중생, 칭의 등 은사를 받았으니 그러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이와같이 은혜를 더 강하게 해주며 종국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필요로 하게 만드는 율법은 현대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루터의 율법관처럼 구원의 서정으로 이해되었는지 안되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일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칼빈은 율법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완성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율법의 참 내용인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율법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선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주장하기를 우리가 율법이 가르키는 의식법이나 정치 체계에 관한 율법에서는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 율법의 내용인 그리스도에게는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4 절 복음과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

1. 루 터

루터는 “모든 성경은 어디서나 그리스도만을 기록하고 있다” 118) 고 말한다.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란 율법과 복음을 의미

118) W A. 11, 596, 12 ff ; 2, 626, 2 ff.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계약의 보증으로서 율법은 복음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성경은 율법을 보여주는 동시에 구주로서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오직 하나인 내용은 그리스도이다.¹¹⁹⁾

루터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주로 율법을 가르치고, 죄를 지적하고, 좋은 행위를 요구하는데 있고, 신약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있어서의 사죄와 은총 즉 복음이란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다.¹²⁰⁾

루터에게 있어서 구약성경은 2종의 의미로 그리스도의 책이었다. 또 그리스도 책이란 점에서 신약성경과의 일치 즉 양서의 통일이 있었다. 또한 그리스도 책이란 점에서 신약 성경과의 일치 즉 양서의 통일이 있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이 율법이라는 형태로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의미이며¹²¹⁾ 둘째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약속이란 예언된 틀이 가득하다는 의미로¹²²⁾ 그리스도의 책이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종류의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루터가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과 예정된 형태 혹은 원형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구약 성경을 보았을 때에 거기는 구약 성경의 특수한 해석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119) 김남식, *op. cit.*, p.56.

120) 김남식, *op. cit.*, p.60.

121) 롬 10:4에서 “율법의 종말로서의 그리스도”라는 성구를 근거한다.

122) 갈 3:13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대속해 내어 주셨다”는 성구에서 근거하고 있다.

발견할 때 성경 해석에 관계한다. 또한 성경 내용으로서의 그리스도가 개인에게 현재 심판과 은총이 된다는 의미는 율법과 복음을 매개로한 신앙의 원형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¹²³⁾

이상에서 루터 신학의 중심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들은 모든 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성경해석의 실제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복음과 율법의 관계라는 루터의 변증법에 의거해 왔다. 그것만이 아니라 루터의 신학이 은총과 자유 의지를 에워싸고 그 주제가 전개된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혹은 인문주의에 대해서 그 차이를 분명하게 밝힌 것도 복음과 율법이라는 그 관계 또는 문제 파악의 방법 논리였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루터 신학의 세계 교회에 대한 기여’라고 말한 R.브링크¹²⁴⁾의 말을 빌어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루터의 ‘복음과 율법’이 어떠한 폭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까지 언급한 일이 없는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려 한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루터의 율법 이해의 첫째 근본적인 전제이다. 둘째, 근본적인 전제는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성취자며 이 세상에 있어서는 율법과 복음의 일치가 없다는 사실이다.¹²⁵⁾ 율법이 참된 의를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적 인간 행위가 또한

123) 김남식, op. cit., p.63.

124) 현대 스웨덴의 루터 학파

125) 김남식, op. cit., p.71.

그러한 것이므로 인간이 율법적 행위에서 오는 교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박아 버리고 겸손해야 하는 것은 루터는 강조한다.¹²⁶⁾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십자가 신학의 진리이다. 그는 말하기를 “옛 율법을 보라.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곧 육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계명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에 불과하다”¹²⁷⁾고 말하였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있어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에 의한 사죄의 선언인 것이다. 율법은 죽음을, 복음은 그리스도에 의한 율법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보여주고,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하에 인간을 두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인간을 있게 한다. 바울은 율법없이 의로움을 얻는다고 말했으며¹²⁸⁾ 루터는 그것을 더욱 날카롭게 ‘율법을 거스려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고 가르쳤다.¹²⁹⁾

이상에서 루터의 율법관에 대해서는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율법관의 첫째는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을 모두 정죄한다고 하는 것과 「고난의 그리스도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고 있다」¹³⁰⁾고 하는 그의 말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이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율법의 종결, 완성자로서의 그리스도로부터의 율법 이해이다. 루터에 있어서는 복음과

126) 이장식, op. cit., p.121.

127) J. Pelikan, 「Luther, The Expositor, Luther's Works」 (Companion Volum : Concordia Publishing House), p.70. quot. from 루터전집 Weimar 판 (W.A.) 4, 174, 17-18.

128) 롬 3:28.

129) 루터의 파라데누스와 데이레만과의 박사 시험의 토론(1537)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130)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토론을 참고하다.

율법에 의해서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그 신학의 출발점이고 중심 과제임이 분명해진다.¹³¹⁾

2. 칼 빈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에 관한 교리를 전개하기 전에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장을 다루고 있다.¹³²⁾ 그리하여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규정하고 무엇을 약속하는가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定立되어 있다”고 하므로 율법을 그리스도에게 관련시킬 때 옳게 이해할 수 있다고¹³³⁾ 주장한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것은 옛 백성을 엮매어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이다.¹³⁴⁾

칼빈에게 있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다. 그리스도는 신앙의 대상이며 그 목표이다.¹³⁵⁾ 만약 우리가 성부께서 제공하신대로, 즉 복음으로 옷입혀진대로 그리스도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올 것이다.¹³⁶⁾ 도널드 맥킵의 견해에 의하면, 칼빈의 주석 작업은 모든 지식들이 단순히 지식들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을 가르켜 보여 주는 것으로 되

131) 김남식, *op. cit.*, pp.72-81.

132) *Inst.* II. vi.

133) Wilhelm,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p.89.

134) *Inst.* II. vii. 1.

135) *Scopum fidei*, *Inst.*, III. ii. 6.

136) *Inst.* III. ii. 6.

되어야 한다는 신념속에서 수행했다고 본다.¹³⁷⁾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대상이요, 또한 그 목표이며 모든 성경은 그를 계시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되어서 해석되어야 한다.¹³⁸⁾ 성경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고 D.K.Mckin은 그의 요 5:39의 주석에서 언급하고 있다.¹³⁹⁾ 한편 칼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참되고 확고하게 알려지며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성부에 의하여 제시된 즉 그의 복음으로 웃입은 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¹⁴⁰⁾

이렇듯 칼빈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¹⁴¹⁾ 그리고 그리스도를 담아있는 그 책이 아니라, 그 책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칼빈이 갈파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결코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의 증거를 통하여 이미 제시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칼빈에게서는 복음과 율법, 구약과 신약의 긴장관계가 기독교론적으로 그리고 구원론적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칼빈은 행 7:

137) Jack B. Rogers와 Donald K. Mckim의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n Historical Approach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79), pp.89-116의 칼빈 부분에서 볼 수 있다.

138) Kraus, "Calvin's Exegetical Principle," p.17. 그리고 Rogen and Mckim, Authority. pp. 106이하의 "Incarnational of Scripture"에 관한 부분을 보라.

139) T.H.L. Parker,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71), pp. 118이하.

140) Inst. III. iii. 6.

141) Paul Lehman, 「The Reformer's Use of the Bible」 Theology Today, (1946-47), p.330.

38을 142) 주석하면서 신학으로서의 율법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며 그 자체 속에 생명을 지니고 있는 생명과 구원의 교리로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칼빈은 구약의 율법도 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구원의 교리이며 이 첫 언약 역시 결코 피 없이는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¹⁴³⁾ 구약도 피로 드러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거룩한 삶의 길로서 주신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며 그것을 완전히 지키는 자는 누구나 생명을 얻는다는 것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율법은 무가치하며 여하한 확고한 근거도 주지 못한다.”¹⁴⁴⁾ 이러한 사실은 율법의 각 조문에도 타당하다. 희생 제사와 의식도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¹⁴⁵⁾ “의식법에 의해서 정해진 예배 의식이 지시하는 진리와 현실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의식의 능력과 효과는 그에게 의존한다.”¹⁴⁶⁾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으므로 그의 백성에 대하여 고지해 주신 구약적 예배의 많은 동작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것이 아니었다.¹⁴⁷⁾

142) Calvin, L.C.C., XXIII, op. cit., p.103.

143) 히 9:18-20.

144) Calvin, C R. 48, 289 (행 13:16).

145) C R. 50, 603.

146) C R. 48, 305 (행 13:39). CP. III. ii. 32. O.S. 4. 44. 2.

147) Niesel, op. cit., p.90.

그러하여 벗은 채로 신의 자비에 도피하여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 안에 숨어 이것만을 자기의 의로 삼고 공로로 삼는데 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신앙으로서 이것을 갈구하며 기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주어져 있다.¹⁴⁸⁾

그런데 도덕법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육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의미로 지나고 있다. 모세는 율법이 죄인들에게는 죽음 밖에는 아무 것도 일어나게 하지 않으나 성도들에게는 보다 좋고 적절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고 칼빈은 말한다.¹⁴⁹⁾ 우리가 이러한 임무에 찬성하며 율법 안에 신의 은혜의 부르심을 듣고 신이 우리 사이에 세운 은총의 계약을 인정한다면 그 때 우리는 율법 밑에서 위로를 받으며 걸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연관속에서 보기 때문이다.¹⁵⁰⁾ 그에게 있어서 율법은 심판하고 벌주는 직능을 수행하게 한다.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율법은 단 한 분 밖에 안계시는 그에 의해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가르키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셨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 길로 부름을 받는 데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의식법이나 도덕법은 그 자체 안에 목적이 있거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최고 목표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에게로 나아

148) Inst. II. vii. 8 : O. S. 3. 334, 15.

149) Inst. II. vii. 13 ; O. S. 3. 339. 1.

150) Inst. II. vii. 12 ; O. S. 3. 338, 26.

가게 하는데 율법의 본질이 있다.¹⁵¹⁾ 또한 이 율법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과의 계약에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다.¹⁵²⁾

151) 롬 3:21.

152) 마 1:1, 창 22:18, 갈 3:16, 롬 9:5.

제 4 장 율법의 세 가지 용법과 복음

제 1 절 정치적 용법 (The Political use of the Law)

이것은 율법의 기능이 시민질서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 정치행정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루터와 칼빈은 완전히 동일하다.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 주석에서 “율법의 첫 번째 용법은 악자들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 정치 행정적 억제는 아주 필요하다. 또 하나님께서 임명한 것으로 공공적 평화와 아울러 만물의 유지 뿐만 아니고 특히 악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저해를 받지 않게 하는데 필요하다.”¹⁵³⁾ 고 했다. 칼빈도 율법의 첫째 용법은 율법의 선포와 결과적 처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강제가 아니면 정의를 무시하는 자들을 막는데 있다. 이들은 저희 마음이 내적으로 동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제재가 걸렸을 때 외적 행동을 막게 하고 내적으로 타락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¹⁵⁴⁾

율법의 정치적 용법은 인간본질의 실제적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¹⁵⁵⁾ 사회는 타락한 인간들, 이기주의와 정복에 찬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보다 더 심하게 보고 있다. 법의 기능은 이와같이 죄를 제재하고 변경시키는 것이다.¹⁵⁶⁾

율법의 정치적 용법의 효과는 첫째로 아주 소극적이다. 그것은 제지적

153) Luther, op. cit., p.319.

154) Inst. II. vii. 10.

155) 이것은 롬 13 장에 근거한 성경적 교리이다.

156) 이근삼,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 1985), p.116.

(制止的)이다. 그것은 사회가 혼돈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 이상이다.

루터가 율법의 정치적 용법을 강조할 때에도 악하고 교만한 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만일 복음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악하고 교만한 인간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권리는 위험에 놓여지고 말 것이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국가를 존경하고 법적 규례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율법적 위치의 첫째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¹⁵⁷⁾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바로 보았다. 루터는 “정치 행정에 있어서 법에 순종하는 것은 엄격하게 요구되어야 한다.”고 했다.¹⁵⁸⁾ 칼빈도 이 점에 대해 통치자들에게 대한 피지배자들의 첫째 임무는 저희 직분을 존경하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법적 권위임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신들로 받아 들이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다.¹⁵⁹⁾ 그러나 이 권리는 맹목적으로 적용되서는 안된다. 또 칼빈은 말하기를 “모든 군왕들이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저희 명령을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야 하고, 저희 머리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고개 숙여야 하는데 그 국가에 대한 복종이 어찌 하나님께 대한 복종에 비할 수 있겠는가?”¹⁶⁰⁾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부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명하든지

157) 롬 13:1, 13:2, 13:5.

158) 갈 2:14 주석.

159) Inst. IV. xx. 22.

160) Inst. IV. xx. 32.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금할 때에는 기독교신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사람에게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2. 교육적 용법 (The Pedagogic Use of the Law)

이 용법은 “율법의 제 2 용법” (Secundus usus legis), “신학적 용법” (Usus theologicus) 혹은 “영적 용법” (Usus legis spiritualis) 으로 혼란적이고 교육적이다. 죄에 대하여 거울이 되어 회개로 인도하고 거기에서 신앙이 생기게 하는 영적 결핍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루터와 칼빈은 일치한다.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¹⁶²⁾ 그러므로 율법의 바른 용법과 목적은 저희가 죄와 진노와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심지어 나무잎이 떨어지는 데도 두려워 하고 절망하고 떨고 있으면서도 안녕히 살고 있는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다.¹⁶³⁾ 법의 기능은 사람에게 그의 죄와 눈먼 것과 비참한 불경건과 무지와 하나님을 미워함과 모욕, 죽음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보여주는 것이다.¹⁶⁴⁾

칼빈도 같은 율법의 효능을 말한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 율법은 사람 자신의 모든 불의를 하나 하나 경고하고 죄인됨을 확인케 하고 정죄한다.¹⁶⁵⁾

161) 이근삼, op. cit., p.119.

162) 갈 2:17, 3, 10, 3:19.

163) 갈 2:17.

164) 갈 3:10.

165) Inst. II. vii. 6.

이와 같이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에 앞서서 하나의 훈련으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오직 율법만이 인간의 부족 의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 율법만이 죄인의 자유와 자족의 무장을 깨뜨릴 수 있다. 율법은 사람의 죄악됨을 폭로만 아니라 그것을 정죄한다.¹⁶⁶⁾ 율법의 정당한 용법은 사람이 죄와 진노와 영원한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자신을 볼 수 있고 그 결과 두려워하고 절망에 이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¹⁶⁷⁾ 라고 루터는 말한다. 율법은 책망하고 두려게 하고 정죄한다.¹⁶⁸⁾ 이와 같이 율법은 위로보다 결핍의식을 만들어 준다고 루터는 간파한다.

그러나 율법의 교육적 용법은 불신자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회개 이전의 경험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생활에 실제로 중요한 것이다. 신자의 생활에는 自義가 계속적으로 자리잡고 일어날 위험이 있다. 율법은 신자를 경고하고 책망하고 징계해서 그것을 막아준다. 율법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의 최선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치 않는다.

이렇듯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의식을 주는 것만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패를 덜하게 한다. 루터와 칼빈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하다. 칼빈은 율법의 기능이 인간을 고발하고 저주와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 구원이 그 목적이라고 한다.¹⁶⁹⁾ 즉 이 경우 율법은

166) Inst. II. vii . 7.

167) 갈 2:17. 주석

168) 갈 3:19. 주석

169) Inst. II. vii . 8.

인간의 내적 변화를 일으켜 새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절망에 떨어지게 한다. 그리고 이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계시할 뿐이라 170) 인간은 율법에 조명되어 벌거벗고 빈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난하여 그의 자비에만 의존해야 한다. 그의 이 자비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참하고 쓸데없는 죄인 위에 비추인다. 그의 얼굴은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다. 171)

칼빈은 율법의 요구와 명령, 그리고 율법의 고발적 기능과 긴밀히 관련하여 복음을 통한 은혜를 말한다. 172) 이 제 2 용법의 설교는 인간이 혼미성에서 깨고 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하여 은총을 바라보고 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율법은 인간에게 성취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목표로 한다. 이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양심이 공포와 불안을 체험한 후에 복음을 찾게 하는 것이 제 2의 용법의 기능이다. 이 제 2 용법의 직무가 교회에게 주어진 직무와 여기에서 교회와 국가의 직무가 구별된다. 173)

3. 생의 법칙으로서 율법 (The Diductic Use of the Law)

이것은 율법이 신자의 생의 법칙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자

170) Inst. II. vii. 9. 롬 3:19, 11:32.

171) Inst. II. viii. 8.

172) 특히 Augustine의 “은혜와 자유의지” A.D. 426, “영과 문자” 이외의 편지들과 시편주석에서 인용한다.

173) 손규태, “루터의 율법과 복음 - 율법의 제 3 용법을 중심으로 - ” 「기독교사상」, 16, 6. 1972. 6. p.98.

들도 그가 전적인 죄인이건 부분적인 죄인이건 율법 아래 있다고 할 때 그 율법은 제 2의 용법의 율법인가 아니면 제 3의 용법인가? 즉 루터는 제 3용법을 알고 있었는가? 혹은 제 2용법만을 알고 그것을 신자들에게 적용시켰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일련의 학자들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율법과 복음의 극단적인 대립을 주장하는 일련의 학자들은 174) 루터가 제 3의 용법을 알지 못했고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즉 W. Elert는 제 3용법이란 멜랑톤과 칼빈에 의해 그 기원이 있는 것이며 루터 신학에서는 이질적인 요소라고 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성취한 죄인에게 은총을 약속하며, 복음은 성취하지 못한 죄인에게 은총을 약속한다. 루터가 안티노미안들과 대립하여 율법을 복음의 영역에까지 확대시킨 것은 결국 대립적 의미, 죄인이며 의인이라는 파라독스에서만 이해되는 변증법적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175) 한편 율법과 복음 혹은 복음과 율법의 통일적 성격을 강조한 일련의 학자들은 176) 루터의 제 3용법의 가능성을—간접적이라 하지만— 긍정하려고 한다. 비록

174) W. Elert, H. Asmussen, G. Ebeling, R. Bring, E. Kinder H. Thielicke 등.

175)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1), p.257. Luther in his battle with antinomians can assert that abolishing the law means abolishing sin.

176) 예로서 K. Barth, E. Brunner, H. S. H. Gollwitzer.

루터에게서는 명백히 그 용어를 찾아볼 수는 없다 해도 그런 개념의 가능성은 전혀 배제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경고로서의 율법의 기능은 제 2용법이 되기 보다는 제 3용법의 기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하나 명백한 것은 루터는 율법을 결코 복음과의 통일적인 관계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제 3용법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약화된 율법이란 그에게서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생이란 안내자를 따라가는 생이 아니라 대립 투쟁의 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터가 ‘율법의 마지막’을 어떤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개념에서 보고 율법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복음에로의 전환에서 의인과 자유를 이해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율법의 변화된 형태로서의 제 3용법은 그에게서 찾을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의 교훈은 분명하다. 칼빈은 그의 시편 19편 주석에서 “만일 사람이 생을 잘 지배하는 적절한 방법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율법만이 이 목적을 위해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했다.¹⁷⁷⁾ 또 그는 율법은 신자로 하여금 자기가 좇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배우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다¹⁷⁸⁾ 고 하였다. 분명히 칼빈에게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의 확정된 것으로 신자들과 붙들여 매는 것이다.

루터가 이것이 옳으냐는 점에 있어서는 논란이 많고, 또 루터는 그것을

177) John Calvin, 「구약성경주해」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부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p.472.

178) Inst II. viii. 12.

부인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루터 자신의 진술은 율법이 신자들에게 무효화됐다고 하지 않았다. 루터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바로 율법을 성취한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전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179) 고 말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의 율법 취급법에 있어서도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루터는 기독교 생활에 있어서 율법의 규준성을 확인하면서도 율법이 육의 제한과 죽이는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훈령으로서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 “육이 머물고 있는한 또 몽학선생인 율법이 있어서 양심을 괴롭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양심을 무겁게 한다”고 180) 하였다.

이상에서 보아 루터의 주요한 관심은 율법의 둘째번 용법에 있고 율법의 기능을 신자의 생활에서 생각할 때에도 이 둘째 용법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늘 있는 것이다. 반면 칼빈은 율법의 제 3 용법을 정의하기를 “이것은 율법의 주된 기능으로서 이미 성경에 통치를 받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기능이 율법의 본래 목적이다” 181) 루터는 이와 반대로 “……율법의 참된 기능과 고유한 사용은 인간의 죄악, 무지몽매, 비참함, 사악…… 하나님의 증오, 죽음,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폭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182) 칼빈은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이미

179) 탁상담화, 286.

180) 갈 3:25 주석.

181) Inst. II. vii. 12.

182) 1531년 갈라디아서 강해, Vol. 26. pp.309 - 10.

하나님께서 새 법을 기록하셨다¹⁸³⁾고 한다. 즉 이미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력 있게 산다. 그러나 칼빈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배워서 알아야 하며, 이 뜻을 따라 전투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¹⁸⁴⁾

이상에서 관찰한 대로 루터는 율법의 변화된 기능은 말하지 않고 있다. 율법의 본래적 성격은 복음과 대립함으로써 복음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루터에게서는 이른바 성화에서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부정적 의미에서 투쟁을 통한 죄의 극복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루터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어떤 이론적인 토론의 결실이 아니라 설교, 성경해석, 논쟁, 경험, 투쟁의 산물이다. 율법과 복음의 극단적 통일은 인간의 죄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심각성을 잃게 만들 위험이 있다.¹⁸⁵⁾

그러면 이제 신자를 위한 율법의 규준성 교리를 생각해 보자.

첫째로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적이다. 율법이 매는 것이 아니라는 교리는 불합리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불법적 생은 죄악된 것이고 이것이 구속적 특권이 될 수는 없다. 십계명, 산상보훈, 서신의 윤리적 부분이 사죄를 위함보다는 이미 구속받은 자들에게 감사의 윤리를 가지고 은혜의 신학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한다. 율법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확인하는 것이 신자의 관심사

183) 렘 31:33, 히 10:10.

184) Inst. II. vii. 12.

185) 손규태, op. cit., p.102.

다. 우리는 결코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은 결코 폐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 뿐이다.

둘째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한 이 교리가 율법주의와 186)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다. 이 율법주의는 루터와 칼빈의 견해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도 남음이 있다. 물론 보편적 구속을 의미하는 기본적인 규범적 부정들이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적용은 신자의 주의깊은 신앙적 통찰과 본성의 빛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생의 법칙으로서의 율법의 강요는 사랑의 자발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율법과 사랑은 대립시키는 것은 큰 혼돈을 가져온다.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이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을 범한 것이 아니다.

비록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행위의 계약으로써 율법 아래 매여서 그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지만 187) 그러나 율법은 다른 사람들에게만큼 그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율법은 생활의 기준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가르쳐주고 지도하며 그에 준하여 걸어가도록 188) 의무를 지우며 또한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에서 죄악된 부패성을 발견하며 189) 자신을 돌아보고 전보다 더욱 자기가 죄악된 것을 시인하고 190)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모셔야

186) 율법주의는 첫째로 율법의 행위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다.

187) 롬 6:14, 갈 2:16, 3:13, 4:4,5, 행 13:39, 롬 8:1.

188) 롬 7:12, 22, 25, 시 111:4-6, 고전 7:19.

189) 롬 7:7, 3:20.

190) 약 1:23-25, 롬 7:9, 14, 24.

할 필요를 더욱 분명히 봄과 동시에 온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이상 언급한 율법의 용법은 복음의 은혜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조롭게 상응한다.¹⁹¹⁾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의지를 순복시켜서 시행하기를 요구하는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행하게 하신다.¹⁹²⁾

191) 갈 3:21.

192) 김혜정, 남정숙,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서울: 도서출판 국제, 1980), pp.102 - 109.

위해, 율법을 온전히 지켜 주실 율법의 완성자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로마교회의 선행의 공로에 의한 구원교리를 반대하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Sola Fidei) 이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루터와 칼빈은 계승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2중적 개념에 있어서 일치될 보이는 것 같았지만 율법관에 차이는 없지 않는 것이다.

루터는 율법을 선포하므로 죄를 더욱 깨달은 후에야 그리스도와 복음이 그들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율법이 구원의 길로 아직도 역사한다는 등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보고 상호 선포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칼빈은 구원받은 백성이 삶의 규범으로 깨닫고 알게하기 위해서 율법이 선포되어야 하며, 물론 율법이나 복음이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를 촉구하지만,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던 점이 루터와 차이점이다.

특이할 점은 루터와 칼빈 모두 성경의 중심과 핵심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있었으며, '율법은 그리스도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193) 그들의 근본 전제였다. 칼빈은 율법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194) 예수 그리스도만 신앙의 목표와 대상으로 보았고 복음과 율법 역시 기독교론적으로 보았던 것이다.

193) 김남식, p. 71.

194) Inst. III. vii. 1.

마지막으로 율법의 정치적 그리고 교육적 용법에 있어서 양자가 거의 같은 견해를 가졌으나 율법의 제 3용법에 이르러서 루터는 율법의 변화는 기능을 말하지 않았고, 율법의 본래적인 성격은 복음과 대립됨으로써 복음을 지향하므로 율법을 성화의 과정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부정적 의미에서 투쟁을 통한 죄의 극복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II. vii. 12에서 성화를 위한 율법의 사용을 <율법의 제 3용법이요, 율법의 주된 사용>이라고 하면서 생의 법칙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즉 바울의 구원사적인 관점을 계승한 칼빈은 위와 같이 율법의 용도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바울이 구원사적 관점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처럼 제 3용법으로서 율법의 기능도 사랑의 자발성과 모순되지 않는채 기독교인의 자유의 헌장으로 사랑하고 지킬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루터는 아직도 신앙고백서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안내자로서의 율법의 지위와 역할을 향상시키고 있는 반면, 칼빈은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생활의 규범으로 있어야 함을 개혁주의 신학에 산물로 남겨 놓았던 것이다.

2. 제 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 신학의 제문제의 해결이며 화해인 복음과 율법에 대한 글과 연구가 너무 희소한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인 것 같다. 사실 이 양자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루터교회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의 차이,

전통적 형태에 있어서 종교개혁의 의인론과 타당성,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교회의 책임성의 위치 및 두 나라 개념을 이해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의 특수성, 신앙, 실존, 신학, 인간 이해 및 교육 등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설정에 따라 규정될 것이다.

초대교회가 바울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구원사적으로 이해한 것을 랍비들의 구약 문자적 의미만을 주장하는 성경해석과 영지주의자들의 소 구약 폐기 주장에 대항하여 싸워 성경을 보존하였다. 오늘 우리도 이 과제를 잘 연구하고 이해하여 율법주의자들과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물론 자유주의 신학과 용감히 싸워 진리와 신앙을 순교자적 자세를 가지고 파수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결단코 루터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처럼 한국 교회의 강단과 신학계에서 바울의 구원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이라는 진리만을 강조하므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율법의 행위로도 가능한데, 더 쉬운 길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뉘앙스를 남기게 하여 아직도 율법이 구원의 길로서 세력을 행사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설교하므로 더 이상 혼란을 더해서는 추호도 안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 남 식, 「칼빈주의 연구」 서울:백합출판사, 1972.
- _____, 「종교개혁의 신학」 서울:한국성서협회, 1976.
- 김 명 혁,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신학지남」, 제 44 권 1 집.
1977. 3.
- _____, “루터의 성경관” 「종교개혁사 강의」, 서울:합동신학교,
1977. 4.
- _____, “루터의 종교개혁” 「종교개혁 강의」, 서울:합동신학교,
1977. 4.
- _____, “칼빈의 생애와 사상” 「종교개혁사 강의」 서울:합동
신학교, 1977. 4.
- 김 성 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서울:엠마오, 1975.
- 김 의 환, “칼빈의 성경관 성경 권위를 중심으로” 「신학지남」
제 38 집, 1971.
- 김 해 정, 남 정 수,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 서울: 도서출판
서적, 1980.
- 박 종 칠, 「구속사적 성경해석」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6.
- 서 철 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서울:엠마오, 1987.
- 손 규 태, “루터의 율법과 복음”, 「기독교 사상」 16. 6, 1972.1.
- 송 정 울, “루터에 있어서의 율법과 복음”, 「기독교 사상」 9, 10,
1959. 10, 11.

- 이 근 삼,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서울: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5.
- 이 장 식, 「교리 중심의 기독교사상 제 2권」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6.
- 이 종 성, “한국교회의 성서 이해”, 「기독교사상」 1970. 7.
- _____, 「칼빈」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3.
- _____, “칼빈의 생애와 업적,” 「신학지남」 29, 1. 1962. 9.
- 정 성 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세종문화사, 1980.
- 정 인 찬 편, “율법”, 「성서대백과사전 제 12권」 서울:기독교지혜사, 1980.
- 정 훈 성,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서울:한국복음문서연구회, 1983.
- 홍 반 식 외, 「개혁신앙의 원리와 실제」 서울:엠마오. 1987.
- Bruce. F.F., 「The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김광택 역, 서울:생명의말씀사, 1983.
- Calvin, J., 「기독교 강요선」 이종성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0.
- _____, 「기독교 강요」 김문계 역, 서울:세종문화, 1979.
- _____, 「칼빈의 성경관」 편집부 엮음. 서울:풍만출판사, 1986.
- _____, 「칼빈성경주해 제 7권」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79.
- DeHaan. M.R., 「Law and Grace」 이용화 역, 서울:생명의말씀사, 1985.
- Harris. R.L., 「Inspiration and Canonicity of the Bible」 박종철 역, 서울: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78.

- Harrison. E. F., 「Baker's Dictionary of Theology」 신성종 역,
서울: 엠마오, 1986.
- Kistemaker, s., 「Interpretation God's Word Today」 김남식 역,
서울: 성광문화, 1980.
- Ladd. G. L.,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신성종,
이한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 Niezel. W., 「Die Theology Calvins」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
회, 1973.
- Murry. J.,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나용화 역, 서울: 예수교 문서선교회, 1976.
- Ridderbos, G. E.,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박영희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7.
- See berg. L., 「The History of Doctrins II」 김영배 역,
서울: 엠마오, 1985.
- Stott. John. R. W., 「Men Made New : Rom 5-8」 김유역, 서울: 엠마오,
1985.
- Stuhlmacher, P., 「Schriftauslegung anf dem werg Zur Biblischer.
Theologie」 전경연 역, 서울: 한국신학대 출판부, 1978.
- Kuyper. A., 「Calvinism」 박영남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71.
- Althaus. P.,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
tress Press, 1981.

- Calvin, J., *Istituter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 Bevr-
idge.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Michigan:
Grand Rapids, 1966.
- Elert, W., *The Structure of Lutherianism*. Missouri : Concordia
Publishing House St. Louis, 1967.
- Gritsch, E.W. and Jenson, R.W., *Luther The Theolglcal Movement
and It's Confessional Curitings*. Philadelphia :
Fortress, 1976.
- Kerr, H.T., *A Compend of Luther's Theology*.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1943.
- Kevan, E.F., *The Grace of Law : A Study in Puritan Theology*
London : The Canon Kingsgate, 1964.
- Luther, M., *A Commentary &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Trans. N. J. Westwood : H. Fleming. Revel Company,
1961.
- Lehmann. *The Reformer's Use of the Bible*. Theology Today,
1946-47.
- Mayer, F.E., *Lutheran Theology*. St. Louis : Con cordia Publishing
House, 1956.
- Oswald, M.C., *Luther's worker Vol II. First Lecturer on the
Psalms II. Psalms 76-126*. St. Louis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6.

- _____, *Luther's works vol I. First Lectures on the Pralm I. Pralm 1-75.* St. Louis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6.
- Parker. T.H., *Tohn Calvin : A Biography.* Philadelphia : The westen Press, 1974.
- Pelikan. J., *Luther, The Expositor, Luthers Works.* Campanion volume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770.
- Hyunki, Rye. *A Study of Man in Erasmus and Luther. On Word and Sacrament in more about Luther.* 1971.
- Walttier. C.F.W., *The Proper Distinction Between Law and Gospel.* Trans. W.H.T.Dan. St. Louis : C.P.H., 1929.

ABSTRACT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M. Luther. and J. Calvin. Concerning the Gospel and the Law

Lee, Seung Hee

Department of Theology

Korea Theological Seminary

Professor in Charge :

Park, Jong Chil. Th. M.

One of the problems on the new testament Church is relation of the Gospel and the Law. "Nowdays, don't God's people saved need the Law any more?"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is problem rightly. In this thesis, I thought this problem with centering on Luther and Calvin.

In Part II, I described that the Law was ended by Jesus Coming. But Jesus have come not to abolish the Law but to full-fil it. And paul described that he understood the relation of the Gospen and the Law in the viewpoint of salvation History.

In Part III, I discussed mainly how Luther and Calvin rediscovered this problem. First Luther understood the relation in the viewpoint of salvation History. He insisted that the Law lead sinners to Christ and the Gospel because the Law brings sin

to light and proclaims the wrath of God. Luther, therefore, insisted that the Law lead sinners to redemption. Calvin admitted that it was needful to proclaim the Law!! But his view on the Law differed from Luther's. Calvin emphasized that sinners could be saved by only faith. The Law is one normative Law that God's people saved already need. I agree on Calvin's view on the Law. That is, the Law is what to make us wish for salvation and what to grow up till the second coming rather than what to fetter us.

In last Part, I described that among three uses of the Law Luther's view of potitical use and educational use and Calvin's were identical. In other words the Law suppresses the vice, prevents us from corruption, realizes sin, and makes us seek Jesus Christ. But calvin lays stronger stress on the third use, the Law as rules of life, than Luther. The Law exists as rules of life to sons of God.

As mentioned above, Gospel and Law are opposed to each other. The Law demands a pure heart and complete obedience. The Gospel proclames that the sinner and the unclean man, are accepted for Christ's sake. The Gospel thus abrogates the law's power.

However the function of the Law is never opposed to the grace of Gosepl. Those smoothly correspond.

In this thesis, I am sure that both Gospel and Law make us seek Jesus Christ. In addition I am sure that Gospel and Law are the rule and norm of Faith and Life to please God.